

코스콤, 장마철 대비 안양시 취약계층에 제습기 지원

»» 코스콤 NOW

코스콤의 채용소식, 캠페인, 직원 인터뷰 및 공지사항 등을 전합니다.



코스콤(사장 홍우선)이 장마철을 맞아 안양시 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제습기를 지원하고 나섰다. 7월 11일 안양시청에서 ‘코스콤과 함께하는 안양시 희망드림사업 후원물품 전달식’을 진행했다.

홍우선 코스콤 사장이 행사에 참석해 후원 물품인 제습기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전달했으며, 이 물품은 안양시 내 지하, 반지하에 거주 중인 저소득 가정에 지원됐다.

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“장마철이면 더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이 제습기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보탤다”라며 “코스콤은 앞으로도 사업장이 위치한 안양 내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나눔을 이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코스콤은 지난 2016년부터 코스콤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안양시에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. 홀몸 어르신, 저소득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사

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.